

인도의 얼음냉수 제 45 호

배준석 김현옥 손모음 편지

카카오톡 ID : baejunseok1026

연락 이메일 : peter1026@hanmail.net

1. CCM 동역자 오빠의 결혼식

2024년이 벌써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엿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고국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합류하게 된 동역자 쇼바 아브라함의 오빠가 결혼식을 하게 되어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부는 푸네에서 3000km 이상 떨어진 곳이 고향이어서 그곳에서 결혼식을 하고 다시 푸네로 돌아와서 리셉션 개념으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인도는 결혼식을 평생에 가장 중요한 잔치로 여기고 매우 사치스럽고 호화롭게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심지어 가난한 국민들도 빚을 내어서 결혼식을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쇼바의 오빠는 크리스찬 가정이어서 매우 검소하고 간단하게 결혼식을 거행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함께 축하해 주고,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2. 푸른 목장 교회의 가정 예배.

저의 사역은 5월부터 시작하여 12월까지 진행되기에 1월부터 4월까지의 주변의 교회를 돌아보고 개인전도 위주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이웃의 푸른목장 교회에 자주 참석하여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특별히 매주 가정예배에 저희 가정이 함께 참석하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모임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과 어린아이들의 눈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푸른 목장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고빈다 목사님은 참으로 신실하게 성도들을 돌보는 사역자였습니다. 한국에 성도들에게 이 사역자와 가정을 위해 기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빈다 목사님과 그의 아내는 모두가 다 불신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헌신하여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과 가난함도 이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열정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3. 소명이 주원이 이야기.

소명이가 이제 12학년(고3)이 되었습니다. 한국 나이로 하면 대학교에 1학년이지만 인도에서 1년 정도 늦게 학교에 들어가게 되어 이제 고3이 되었습니다. 소명은 작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여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인도에서 계속 대학을 다니고 싶어 합니다. 아직 어느 대학에 갈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소명이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원은 이제 중3이 되었습니다. 주원도 작년에 누나와 함께 입교를 했었는데, 계속해서 주님의 뜻에 따라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ㄱㄴ제목

1.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만 증거하는 사역자가 되도록.
2. 5월 첫째 주에 있을 어린이 성경학교 세미나를 통해 교회에 어린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3. 6월부터 시작될 CCM(어린이 사역자 훈련학교)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도록.

4. 소명이는 12학년(고3)이 되어 내년엔 인도에서 대학을 다니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주원이는 9학년(중3)이 되는데
학업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도록.



쇼바 아브라함 오빠 결혼식



결혼식 참석



푸른 목장 교.회 가정예.배



푸른 목장 교.회 금요 기도회



런던 머핀 직원들에게 전도 1



런던 머핀 직원들에게 전도 2